부동산시장 동향 <Summary>

[주거용 부동산 시장]

- 주택가격: 수도권 하락폭 확대, 주택매매전망지수 크게 하락
 -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(-0.16%)은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, 주택매매전망지수(68.7) 2013년 조사 시장 이후 최저치 기록
 - 전세가격 하락세 전국 확대되는 가운데, 비아파트의 수요는 소폭 증가
- **주택거래** : 주택 거래량, 최근 5년 월평균 거래량(8.2만호)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
 -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약 3.6만호. 수도권(-57.2%)에서 비수도권(-38%) 대비 크게 감소
 - 미분양아파트는 3.3만호, 전체적으로 적은 수준이나 대구와 경북에 전국 미분양의 46% 집중
- 주택공급: 청약경쟁률 2개월 연속 3:1. 비수도권 청약시장 크게 위축
 - 9월 분양물량은 최근 1년 월평균 분양물량 대비 42.7% 감소한 약 1.9만호, 입주물량은 약 3.4만호
- 토지: 전국 토지거래량 과거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위축 분위기 지속
 - 8월 전국 토지거래량 16.9만건으로 전월과 유사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
 - 8월 전국 토지가격은 0.28%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
- 주택금융 :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 저성장 전망
 - 8월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1.6조원, 전세자금대출은 0.9조원 순증
 - 8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금리는 4.35%로 전월대비 19bp 상승

[상업용 부동산 시장]

- **물류창고** : 임대료 증가세이나, 거래감소 및 하반기 공급물량 증가는 부담
 - 2022년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규모 전년동기대비 40% 감소, 하반기 공급 전년동기대비 150% 증가
- **오피스텔**: 전국 매매시세 상승 폭 둔화 지속, 임대수익률은 보합세 지속
 - 전국 오피스텔 가격 201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상승률 0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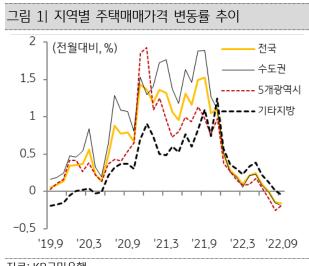
[해외 부동산 시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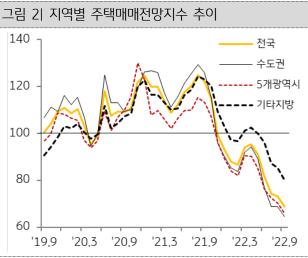
- 미국주택: 높은 주택가격 부담과 금리인상 여파로 매매수요 위축되면서 주택매매가격 하락
 - 7월 S&P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.8% 하락하여 3년만에 하락세 전환, 기존주택 판매는 7개월 연속 하락.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주택가격 하락폭 커질 우려 제기
- **홍콩주택**: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여파로 홍콩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확대
 - 코로나 여파와 더불어 미·중 무역전쟁, 정치불안 등으로 홍콩 주택시장은 약세 지속, 최근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부각

[주택 매매] 수도권 하락폭 확대, 매매전망지수 크게 하락

■ 전국적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전망지수 역대 최저치 기록

-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(-0.16%)은 2개월 연속 하락, 하락 지역 증가하면서 하락폭 확대 수도권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, 기탁지방도 하락으로 전환
- 주택매매전망지수(68.7)는 조사 이래(2013년 4월) 처음으로 70을 하회
 - 수도권의 전망치가 가장 낮은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격상승 기대감이 크게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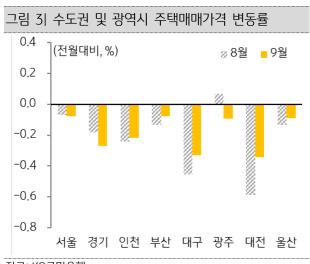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KB국민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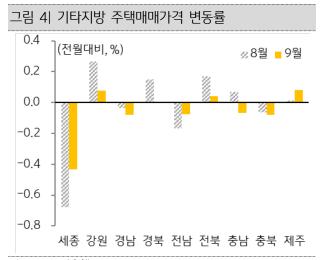
자료: KB국민은행

■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비수도권의 상승 지역도 하락으로 전환

- 서울·경기지역 하락폭이 확대, 대도시 중 지난달 유일하게 매매가격이 상승하였던 광주도 하락 •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세가 지속되던 대구, 대전, 세종의 하락폭은 다소 완화,
-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던 기타지방 대부분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



자료: KB국민은행



자료: KB국민은행

[주택 매매] 가격 하락세 지속되면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 발표

■ 수도권에 비해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큰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 규제 지역에서 해제

- 비수도권의 세종을 제외한 5개광역시와 도 지역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
 - •세종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유지, 수도권은 인천 및 경기 외곽 일부 해제에 그침
- 금리 인상 및 거시경제 불안 등의 요인으로 규제 해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, 대출 및 세금 완화 등의 이점으로 일부 선호 지역의 수요 회복 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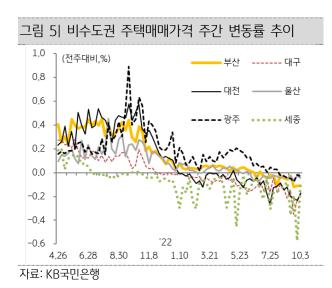


표 1 지역별 규제 해제 지역 현황			
구분	내용		
서울 변동 없음			
 경기	안성시, 평택시, 양주시, 파주시, 동두천시		
0/1	조정대상지역 해제		
인천	연수구, 남동구, 서구		
	투기과열지구 해제		
5개광역시	기존 규제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		
세종	투기지구, 투기과열지구 해제		
기타지방	기존 규제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		

자료: 국토교통부

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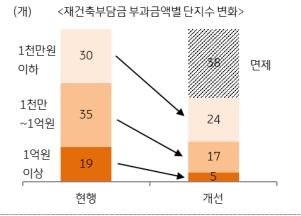
- 금액별 초과이익 부과기준 완화 및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(현행: 추진위 구성 승인일). 또한 실수요자를 위해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및 고령자를 위한 유예 제도도 신설
- 다만,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,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재건축 사업 진행의 부정적인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입법과정에서 개선안이 변경될 여지도 존재

표 2	재건축부담금	부과기준	현실화	개선안

초과	부과 율				
현행	개선	구석걸			
0.3억 원 이하	1억 원 이하	면제			
0.3~0.5억 원	1.0~1.7억 원	10%			
0.5~0.7억 원	1.7~2.4억 원	20%			
0.7~0.9억 원	2.4~3.1억 원	30%			
0.9~1.1억 원	3.1~3.8억 원	40%			
1.1억 원 초과	3.8억 원 초과	50%			

자료: 국토교통부

그림 61 부과기준 및 개시시점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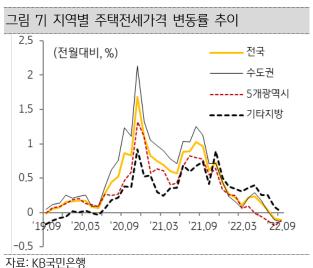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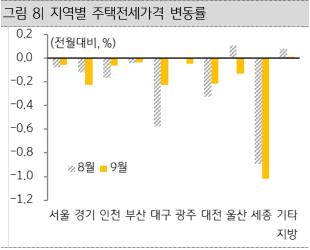
자료: 국토교통부

[주택 전세] 전세시장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, 비아파트의 수요는 소폭 증가

■ 전세가격 하락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, 대전·세종은 연초 이후 하락세 지속

- 9월 전국 주택전세가격(-0.10%)은 2개월 연속 하락 지속
 - 수도권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가운데, 기타지방의 상승폭 크게 둔화
- 광주. 울산도 하락으로 전환되면서. 기타지방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의 전세가격이 하락
 - 대전과 세종은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누적 3.1%, 7.5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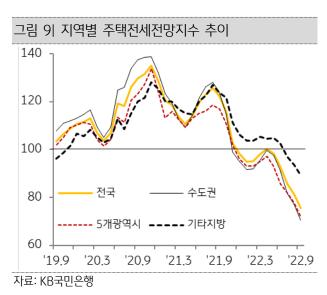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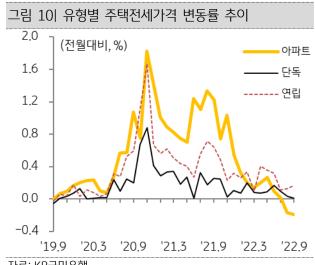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KB국민은행

■ 높은 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수요 증가

-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전망지수(75.6)는 대부분 지역에서 급격히 하락
- 아파트는 하락세 지속,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주택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 유지
 - 2022년 9월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연립주택(1.6억 원)이 아파트(3.4억 원)의 절반 이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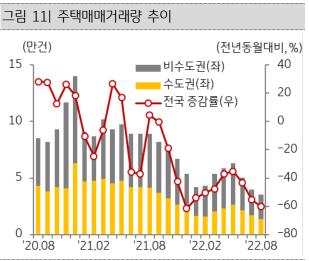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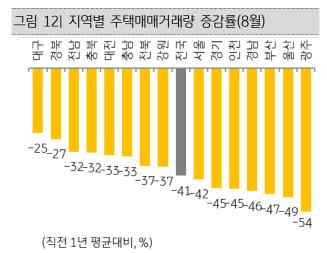
자료: KB국민은행

[주택 거래] 주택 거래량, 최근 5년 월평균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

■ 주택매매 거래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거래 회복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

-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3만 5,531호로 최근 5년 월평균 거래량(8.2만 호) 대비 절반 이하 수준
 - •직전 1년 평균 대비 41% 감소했으며, 수도권(-57%)에서 비수도권(-38%) 대비 크게 감소
- 광주. 울산 등 상대적으로 가격하락폭이 작은 지역에서 거래 위축이 심화
 - 주택경기가 양호한 지역일수록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며, 또한 매도자가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매수자의 희망 가격과 괴리가 큰 것도 원인으로 작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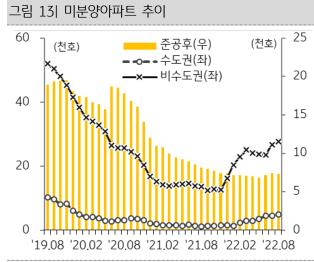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부동산통계정보 R-ONE

자료: 부동산통계정보 R-ONE

■ 미분양아파트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나 일부지역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

- 8월 미분양아파트는 3만 2,722호로 전월 대비 1,438호 증가
- 전체적으로 적은 수준이나 대구(8,301호)와 경북(6,693호)에 전국 미분양의 46%가 집중



자료: 국토교통부

778 (호) 678 296 176₁₅₉ 109 18 0 -13-20-21-31 -196₂₁₃ -26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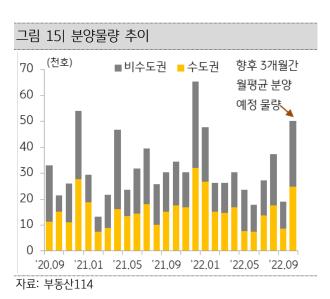
그림 141 지역별 미분양아파트 증감(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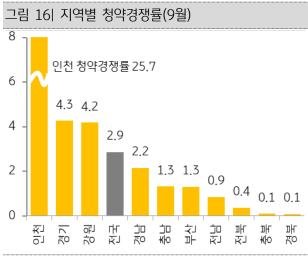
자료: 국토교통부

[주택 공급] 청약경쟁률 2개월 연속 3:1, 비수도권 청약시장 크게 위축

■ 분양물량은 소폭 증가, 청약경쟁률은 3:1 까지 하락

- 9월 분양물량은 약 1.9만 호에 불과하며 분양물량이 2만호를 하회한 것은 올해 들어 두번째 •최근 1년 월 평균 분양물량(3.3만호) 대비 42.7% 감소(수도권 -49.0%, 비수도권 -36.1%)
- 청약경쟁률이 2개월 연속 3:1 수준에 머무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가와 분양 시기 선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
 - ※ 인천 검단에 분양된 우미린클래스원은 역세권, 분양가상한제 적용, 거주의무제한이 없다는 점 등으로 수요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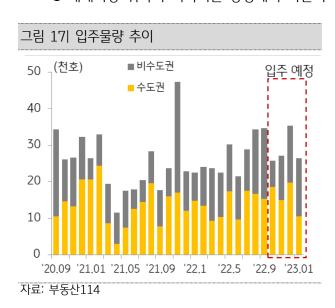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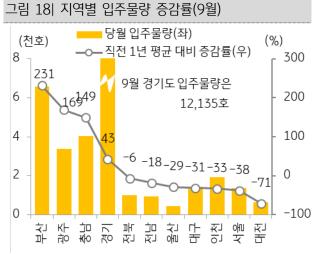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부동산114

■ 8월 입주물량 3.4만호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

- 입주물량은 직전 1년 평균 대비 29.9% 증가(수도권 13.9%, 비수도권 46.3%)
- 매매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입주물량도 증가하면서 전세시장은 안정세 전망





자료: 부동산114

[토지] 전국 토지거래량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 지속

■ 8월 전국 토지가격은 0.28% 상승하며 전월과 유사

- 수도권(0.32%)과 비수도권(0.21%) 모두 토지가격 상승률 3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
 - •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세종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 기록
- 주택시장 위축과 함께 토지시장도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위축세 뚜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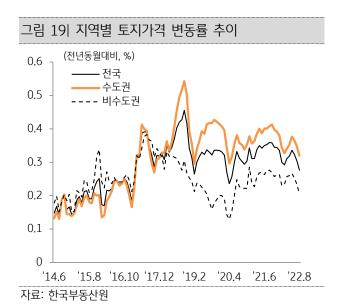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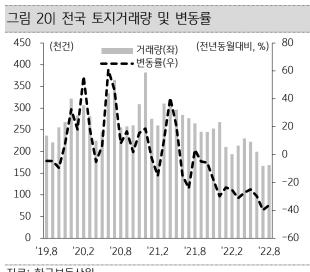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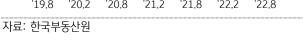
표 3] 지역별 토지가격 변동률(전월대비 %)(8월)				
전국	0.28	경기	0.31	
서울	0.34	강원	0.21	
부산	0.24	충북	0.19	
대구	0.24	충남	0.20	
인천	0.25	전북	0.19	
광주	0.21	전남	0.26	
대전	0.24	경북	0.15	
울산	0.12	경남	0.17	
세종	0.35	제주	0.21	
77. 1745.10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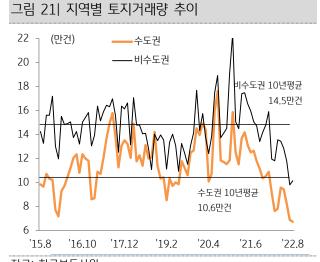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■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8월 16.9만건으로 전월과 유사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

-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택시장 위축세와 함께 토지거래도 둔화
 - 수도권 거래량은 6.7만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대비 37% 낮은 수준
 - •비수도권은 10.1만건으로 전월에 비해 3.6%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 평균대비 30% 감소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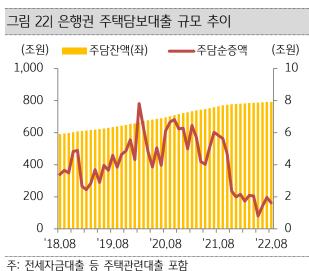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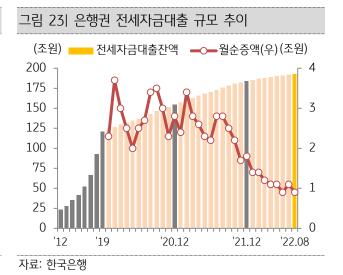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부동산원

[주택 금융]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 성장 둔화 전망

■ (대출 규모) 하반기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낮은 상황

- 주택담보대출(전세대출포함) 8월 순증액은 1.6조원으로 전월 대비 0.4조원 감소
 - 주택경기 침체로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도 2조원 이하 순증세 지속
- 전세자금대출 8월 순증액은 0.9조원으로 6월 이후 두번째로 1조원 하회





자료: 한국은행

■ (금리, 연체율) 주택담보대출 잔액대출금리 2019년 전고점에 도달

- 8월 주담대 신규 대출금리는 4.35%로 전월대비 19bp 상승, 15개월간 166bp 상승
 - •잔액 대출금리는 8월에 10bp 상승한 3.27%로 2019년 3월 고점 3.28% 수준까지 상승

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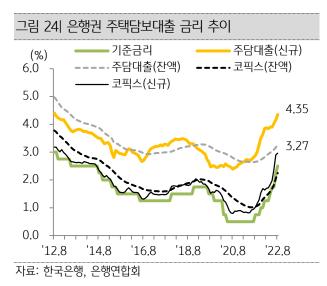
1.2

1.0

8.0

0.6

- •잔액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13개월간 63bp 상승
- 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.11%로 17개월 연속 0.10~0.12% 내에서 횡보



0.4 0.2 0.0 12.7 14.7 16.7 18.7 20.7 22.7

가계대출

┏• 주택담보대출

신용+주택외담보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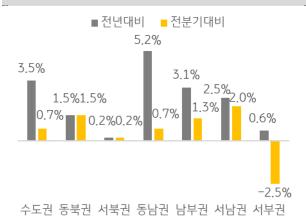
그림 25 은행권 대출 연체율 추이

[물류센터] 임대료 증가세이나, 거래감소 및 하반기 공급물량 증가는 부담

■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료 전년동기대비 3.5% 상승, 수급에 따라 지역별 편차

- 2분기 수도권 물류센터임대료는 전년동기대비 3.5%, 전분기 대비 0.7% 상승
 - •임대료는 2018년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1년 1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
- 수급 차이로 임대료 변동 폭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황
 - 임차인 선호도 높은 동남권 5.2% 상승한 반면, 서부권은 대형 물류센터들의 신규 준공으로 인한 공급 증가로 전분기 대비 2.5% 하락

그림 261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료 추이 (2022.2Q)



자료: WRC, 삼성증권



CPI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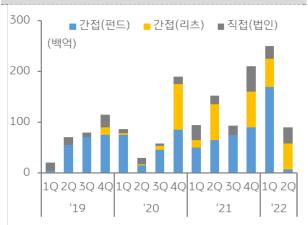
-임대료 인상률

자료: WRC, 한국은행, 삼성증권

■ 금융 조달의 어려움으로 거래량 감소 추이, 하반기 공급 증가로 임대시장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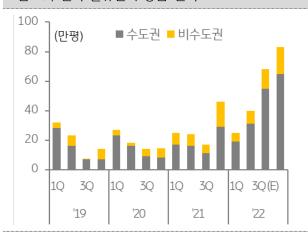
- 금리상승으로 간접투자상품 등의 자산 편입 활동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
 - 2022년 2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0% 정도 감소한 9천억원 추정
- 하반기 준공 예정 물류센터는 약 160만평으로 전년동기 대비 150% 이상 증가

그림 281 매수주체별 물류센터 거래 추이(수도권)



자료: GenstarMate

그림 29 전국 물류센터 공급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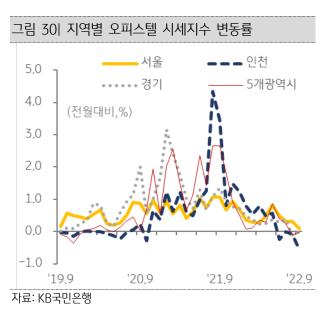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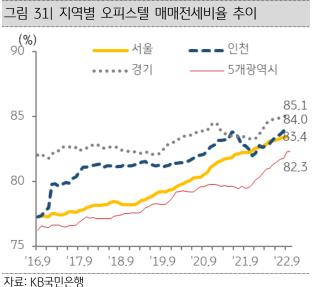
자료: GenstarMate

[오피스텔] 전국 매매시세 상승 폭 둔화, 임대수익률은 보합세 지속

■ 9월 오피스텔 매매가격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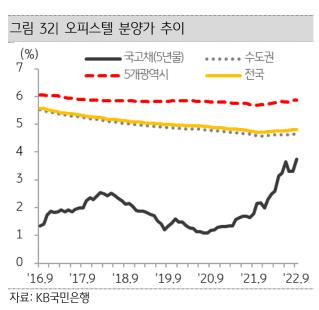
-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.1%p 상승에 그쳤으며, 인천은 2개월 연속 하락,
 - 인천(-0.6%p)은 전월대비 하락폭 키우며, 2014년 5월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
- 매매시장이 위축되며 매매전세비율은 상승세 지속(경기(85.1%), 인천(84.5%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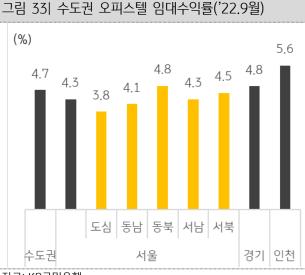




■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보합세, 금리 상승과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투자수요 감소 예상

-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8월 4.8%를 기록하며 2022.2월이후 보합세 지속
 - •최근 1금융권 정기예금 특판금리가 연4% 중반을 돌파하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감소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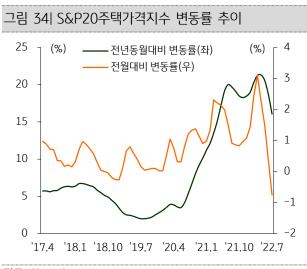




[미국 주택시장] 미국 주택가격 3년만에 하락세 전환

■ 높은 주택가격 부담과 금리인상 여파로 매수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매매가격 하락

-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매수심리는 빠르게 위축, 주택가격은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
 - •7월 S&P 주택가격지수는 316.28로 전월대비 0.8% 하락, 하락폭은 2012년 이후 최고치
 - •8월 기존주택 매매량은 480만채로 전월대비 0.4% 감소하며 7개월 연속 하락, 신규주택은 69만채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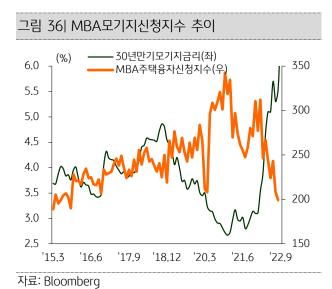




자료: Bloomberg

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주택가격 하락폭 커질 우려 제기

-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공항 이후 최고 하락폭 경고
 - 모건스탠리는 내년말까지 미국 주택가격이 7%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, 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주택거래량 30%이상 감소시 가격은 10~15%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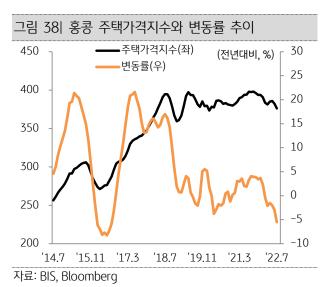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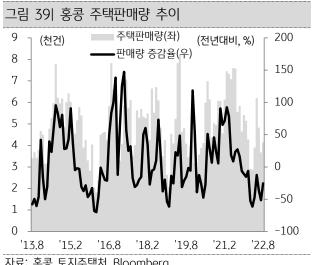


[홍콩 주택]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여파로 홍콩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확대

■ 코로나 여파와 더불어 미·중 무역전쟁, 정치불안 등으로 홍콩 주택시장은 약세 지속

-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매매건수는 전년대비 38% 감소하며 가격 하락세 지속
 - •7월 홍콩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.5% 하락한 가운데, 주택판매량은 올해 월평균 4천여 건 에 그치며 지난해 동월대비 25.4% 감소
- 홍콩 내 정치불안으로 인구는 2022년 2년 연속 1.6% 감소하는 등 주택 수요기반 약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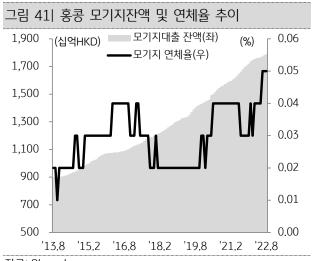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홍콩 토지주택처, Bloomberg

■ 최근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부각

- 홍콩 기준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매수수요는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
- 한편 글로벌 부동산 전문회사들은 향후 홍콩 주택가격의 큰 폭 하락 전망
 - JLL은 장기적으로 20~30% 하락,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20% 하락 가능성 제시





자료: Bloomberg

FOCUS ISSUE

「KB 오피스 투자지수」로 살펴 본 서울 오피스 시장 동향

KB국민은행 KB부동산플랫폼부 정재훈, 김태환

「KB 오피스 투자지수」는 오피스 투자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오피스 시장 동향 분석, 투자 전략 수립 및 성과 평가, 리스크 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지수로 '가격지수, 임대가격지수, 실효운영수익률'로 구성. KB국민은행은 2022년 2분기를 시작으로 매분기 「KB 오피스 투자지수」를 발표할 예정이며 상세한 지수 개요는 [붙임] 참조.

1. 서울 오피스 시장 동향

■ 서울 오피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전년 대비 축소

- O 2022년 2분기 서울 오피스 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2.3% 상승한 168.7을 기록하며 2016년 4분 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
 - 최근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며 2022년 들어서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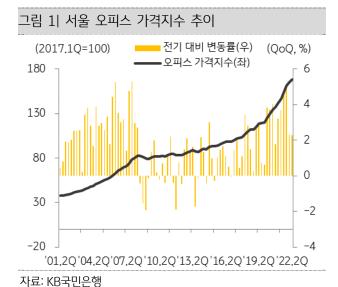


표 11 서울 오피스 가격지수 전기 대비 변동률

	2022.2Q	2021.2Q
서울	2.29%	3.67%
CBD	2.08%	3.82%
GBD	2.80%	5.28%
YBD	2.26%	3.29%
OBD	2.11%	3.30%
YGD	2.18%	3.21%
GSD	2.22%	3.33%
Others	2.05%	3.31%

자료: KB국민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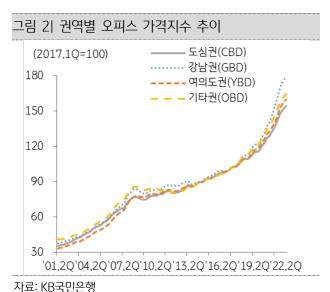
★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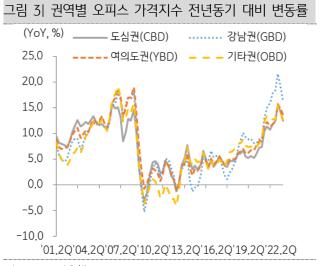
15

¹ 오피스 가격지수는 거래사례가 적은 오피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베이지안 추세 반복매매모형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, 임대가격지수와 실효운영수익률은 시장 평균이 아닌 개별 오피스 임대 현황과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함.

■ 권역별로는 강남권(GBD)이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오피스 가격 상승을 주도

- O 2022년 2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 가격지수 상승률은 강남권(GBD) 16.4%, 여의도권 (YBD) 13.7%, 기타권역(OBD) 12.7%, 도심권(CBD) 12.4% 순
 - 경기 여건이 반영되며 서울 모든 권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이 1분기 대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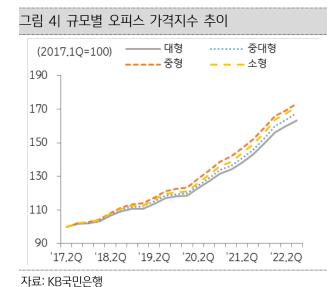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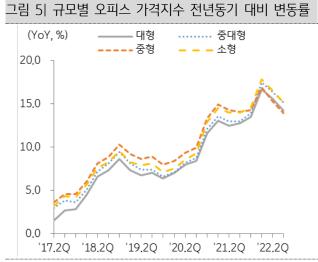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KB국민은행

■ 규모별로는 소형 오피스가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

- 소형 오피스 가격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가장 높은 15.2%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중대형 15.1%, 대형 14.2%, 중형 13.9% 순
 - 시중 유동성 증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소형 오피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소형 오피스 가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 중





자료: KB국민은행

■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

- O 2022년 2분기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²는 123.3으로 전기 대비 4.7%, 전년동기 대비 12.6% 상승
 - 임대수요 증가로 임대료 상승과 함께 공실률 하락, 렌트프리 축소 등이 나타나면서 2021년 하반기 이후 임대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

그림 61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추이 (2017.1Q=100) 전년동기 대비 변동률(우) (QoQ, %) -임대가격지수(좌) 125 14 12 120 10 115 8 110 105 100 '19.2Q '20.2Q '21.2Q '22.2Q '17.2Q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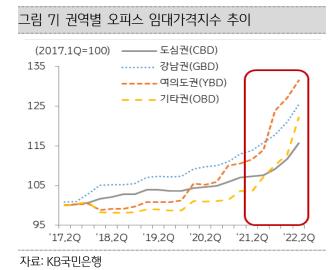
표 21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변동률('22.2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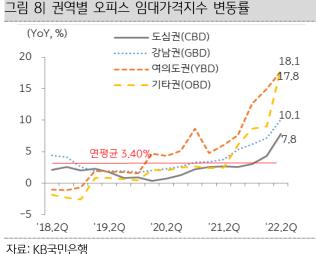
구분	전기	1 년전	3 년전	5 년전
	대비	대비	대비	대비
서울	4.69%	12.59%	18.86%	22,85%
CBD	3.61%	7.79%	11.36%	15.73%
GBD	3.60%	10.15%	16.85%	24.37%
YBD	3.41%	17.80%	30.37%	31.34%
OBD	8.24%	18.11%	23.51%	22.23%

자료: KB국민은행

■ 오피스 임대수요 증가로 모든 권역에서 임대가격 상승폭이 확대

- O 강남권(GBD)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들어 여의도권(YBD)과 기타권역(OBD) 임대가격 상승폭이 확대
 - 2022년 2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임대가격지수 상승폭은 기타권역(OBD)이 18.1%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의도권(YBD)이 17.8%의 상승률을 기록





²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보증금, 임대료, 관리비, RentFree, 전용률을 반영한 실질 임대료를 연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지수

자료: KB국민은행

2. 오피스 시장 여건

■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전망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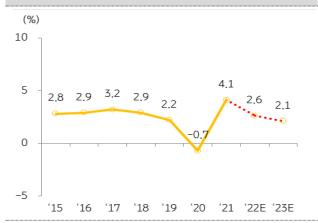
- 세계경제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, 식량가격 등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
 -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.0%(한국, 2.7%)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6%(내년 2.1% 하향전망)로 발표

# 31 OF	CD 세계	경세	선방

구분	'20	'21	'22	'23
전 세계	-3.4	5.8	3.0	2.8
OECD	-4.6	5.5	2.7	1.6
유로존	-6.5	5.3	2.6	1.6
비OECD	-2.3	6.1	3.3	3.8
미국	-3.4	5.7	2.5	1.2
일본	-4.5	1.7	1.7	1.8
중국	2.2	8.1	4.4	4.9
한국	-0.9	4.0	2.7	2.5

자료: OECD, Economic Outlook, June, 2022

그림 의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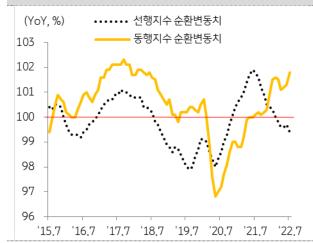


주: 2022년과 2023년 전망치는 2022년 5월 발표 자료 기준 자료: 한국은행

■ 국내 경기 역시 하락 전망이 확대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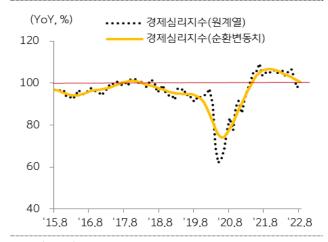
○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7월 99.4를 기록하고 경제심리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확대

그림 101 경기지수 순환변동치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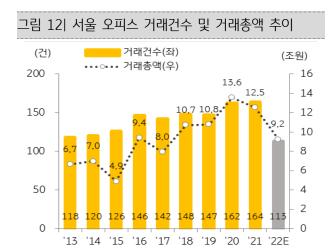
그림 111 경제심리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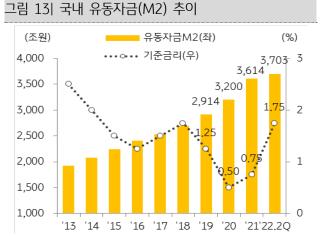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■ 오피스 거래량 줄고 오피스 투자수요 증가를 견인하였던 시중 유동자금 증가세도 둔화

- 202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오피스 거래는 2022년 들어 거래건수와 거 래총액 모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2022년 2분기 기준 유동자금은 M2기준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하여 2020년 9.6%, 2021년 10.9% 대비 증가세가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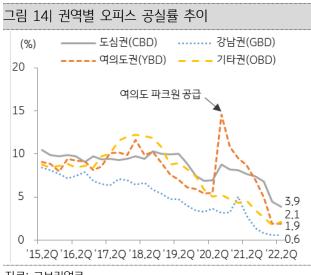
주: 2022년 거래는 2분기 기준 변동률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: KB국민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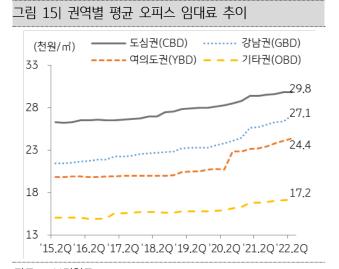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■ 경기 침체 우려에도 오피스 임대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

- 2022년 2분기 기준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2.1%로 2020년 3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
 - 권역별로는 강남권(GBD) 공실률이 0.6%로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, 대형 오피스 공급으로 2020 년 3분기 14.6%까지 상승하였던 여의도권(YBD) 공실률도 1.9%까지 하락
 - 임대수요 증가로 공실률 하락과 함께 평균 임대료 수준도 상승세가 지속



자료: 교보리얼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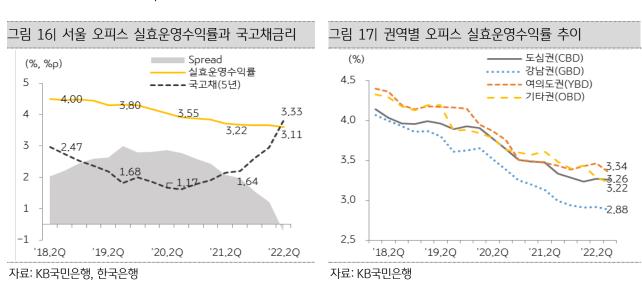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교보리얼코

3. 향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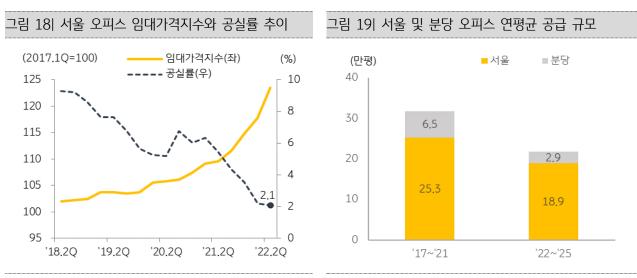
■ 경기 여건 악화, 금리 상승, 실효운영수익률 하락 등으로 오피스 투자수요 다소 위축될 전망

- O 2022년 2분기 서울 오피스 실효운영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.05%p 하락한 3.11%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실효운영수익률 역시 하락세
 - 반면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2분기 들어 서울 오피스 실효운영수익률이 국고채 금리(5년)보다 낮은(-0.22%p) 역전 현상이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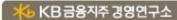
■ 다만 오피스 임대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자산 가격 조정은 제한적일 것

- 견조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서울 오피스의 경우 낮은 공실률과 임대료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투자자산으로서 주목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
 - 향후 서울 및 분당지역 오피스 공급물량이 과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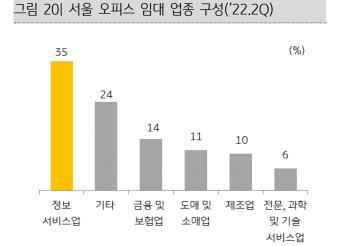
자료: KB국민은행, 교보리얼코

자료: 젠스타메이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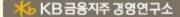


■ 최근 오피스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업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

- 오피스 임차수요 중 정보서비스업의 비중 은 2014년 8.4%에서 2022년 2분기 35%로 크게 증가하며 최근 오피스 임대 수요 증가를 견인
 -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정보서비스업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경우 오피스 임대수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



자료: JLL



MEMO